

국내 손해를 낮춰 ‘본업 강화’… 美 보험사 인수 ‘글로벌 도약’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DB손해보험

성장 보다 ‘수익구조 안정화’ 전략
장기보험 신계약 수익성 제고해야

상반기 美 포테그라 인수 마무리
AI로 비용구조 재설계, 효율화 제고

DB손해보험은 새해 경영 키워드로 ‘경영효율 우위 기반의 글로벌 보험회사 도약’을 제시했다. 국내에선 손해를 등 본업 수익성의 변동성을 낮추고, 해외에선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Fortegra) 인수를 축으로 성장 모델과 이익 규모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 본업 흔들림 ‘숫자’로 확인

DB손해보험의 올해 과제는 ‘성장’보다 수익구조의 안정화에 가깝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D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1조199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5780억원) 대비 3781억원 감소했다.

손익의 결은 엇갈렸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7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61억원 줄었고, 투자손익은 8897



DB손해보험 사옥. /DB손해보험

억원으로 2702억원 늘었다. 본업(보험) 둔화를 투자 성과가 일부 상쇄한 구조다. 보험손익을 보증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8004억원, 자동차보험 218억원, 일반보험 -4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장기보험에 대해 “신계약 수익성 제고”와 “손해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상품·언더라이팅(U/W) 전략”을, 자동차보험에 대해 “적정보험료 확

보 및 U/W 강화”를 전면에 둔 배경도 이 같은 숫자 흐름과 맞물린다.

건전성은 ‘방어’가 핵심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DB손해보험의 K-ICS(지급여력) 비율은 226.45%로公示됐다. 금리·유동성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정종표 사장이 “유동성 및 금리하락 대응 투자손익 관리 강화”를 별도 과제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포테그라·AI Impact·소비자보호

DB손해보험의 ‘글로벌’은 선언이 아니라 거대로 이어졌다. DB손해보험은 2025년 9월 미국 특화보험사 포테그라 발행주식 100%를 16억5000만달러(약 2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6년 상반기 중 거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표 사장은 “포테그라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주 사업은 매출 규모에 걸맞은 수익 규모를 확보하고, 베트남은 합병 시너지를 통해 연결손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AI는 ‘도입’이 아니라 전사 생산성·효율화 과제(AI Impact)가 꼽힌다. 신년사에 ‘AI 기반 생산성·효율화 제고’가 비용구조 재설계와 함께 묶인 만큼, 2026년에는 현업 프로세스 단위의 체

감 성과가 관련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실행 사례는 이미 나왔다. DB손해보험은 2025년 8월 AI 전문기업 티쓰리큐(T3Q)와 온톨로지 기반 ‘보상(청구) 자동화’ 협력을 발표해 개념검증(PoC) 추진을 언급했다. 장기보험 보상 청구 자동화는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도전적인 사업이다.

마지막 축은 감독당국의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기조에 맞춘 소비자보호 강화다.

정종표 사장은 신년사에서 “사전에 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우며 내부통제와 거버넌스 관리를 강조했다.

결국 2026년 DB손해보험의 승부처는 손해를 변동성 축소와 자본·유동성 방어, 포테그라를 축으로 한 해외 이익 규모 확대, AI 기반 효율화가 한 흐름으로 연결되느냐다.

정종표 사장은 “국내 손해를 등 수익성 경쟁우위 회복을 통한 안정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해외는 신규 성장 모델과 수익규모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신한은행

봉사클럽 우수직원 시상 2025 종합업적평가대회

신한은행은 8200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본 투 투머로우(本 to TOMORROW)’를 주제로 ‘2025년 종합업적평가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대회는 지난해 영업 현장에서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은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임직원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영업점과 직원을 포상하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행사다.

신한은행은 ▲직원 가족을 위한 패밀리 프로그램(총 1400명 규모) ▲먹거리 광장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신한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봉사 참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신한 아너스 봉사클럽’ 우수직원 시상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은 평소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온 우수직원 중 대표 2명을 직접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대회사에서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본업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차별화된 전문역량으로 고객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것이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업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역세권에 자연친화, 최대 2억 마진… 학군 입지 아쉬워”

부동산 현장 르포

드파인 연희

지난 16일 찾아간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 오전 개관 직후부터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SK에코플랜트가 서울에 처음 적용한 ‘드파인’ 브랜드 단지인 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컸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들어서는 ‘드파인 연희’는 역세권 입지와 도심 속 자연환경, 하이엔드 신축이란 점이 특징이다.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2·6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DMC와 홍대입구역 등 주요 업무지구로 접근하기 쉽다. 공동근린공원과 안산근린공원, 흥제천과 가까운 자연 친화 입지도 강점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332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2가구 ▲74㎡ 24가구 ▲75㎡ 23가구 ▲84㎡ 112가구 ▲115㎡PB 1가구다. 분양가는 ▲59㎡ 12억100만~12억4300만원 ▲74㎡ 12억6300만~13억3100만원 ▲75㎡ 12억9000만~13억7900만원 ▲84㎡ 13억9700만~15억6500만원 ▲115㎡ 23억5900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강남 ‘로또 단지’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강북 최초의 하이엔드 신축이란 점에서 가격 매력은 분명하다”며 “인근 대장 단지인 DMC파크뷰 자이 84㎡가 16억원대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억~2억원 수준의 안전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에서 이주를 고려 중이라는



‘드파인 연희’ 공사 현장.

SK에코플랜트, 강북 첫 하이엔드 전용 59㎡·84㎡에 일반분양 집중 모두 4베이, 각각 물량 100가구 넘어 단지내 도서 4000권 ‘최인아 책방’

A씨는 “가족들과 살 집으로 청약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느꼈다”며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견본주택 1층에선 단지 모형과 입지도도를 확인할 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유닛 59㎡A, 84㎡B 두 가지 타입이 마련돼 있다. 전용 59㎡와 전용 84㎡에는 일반분양이 집중돼 있어, 각각 100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두 타입 모두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4베이(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판상형 구조라 거실과 방 3개가 같은 방향으로 배치됐다. 확장된 오픈 발코니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 거실과 주방 모두 개방감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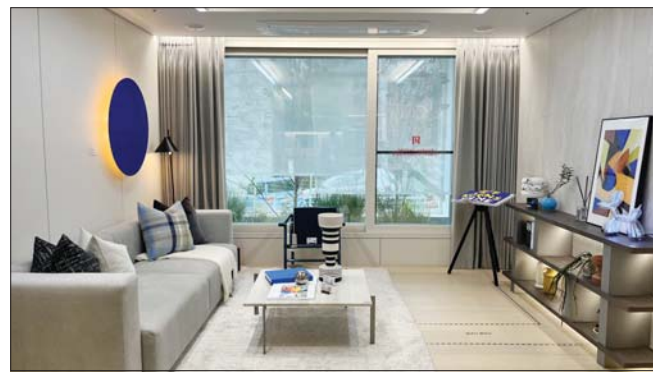
전용 59㎡는 거실과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고 안방에는 큰 드레스룸이 마련돼 있었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는 거실·주방·침실 3개·욕실 2

개에 더해 수납공간인 펜트리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큰 드레스룸을 선호해 옷장을 따로 두려는 수요도 많다”며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춘 특장점”이라고 말했다.

유상 옵션으로는 방음 특화 ‘스튜디오룸’과 반려동물 특화 인테리어(펫테리어)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펫테리어 옵션을 선택하면 미끄럼 방지 바닥, 슬라이딩 도어, 펫 전용 욕실 등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책을 큐레이션해주는 ‘최인아 책방’의 도서 약 4000권과 전문 사서가 운영하는 북클럽이 들어선다. 북토크 등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이 밖에 피트니스·GX룸,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1인 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시설이 조성된다.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은 2030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다. 40대 박지호 씨는 “서대문구에서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입지는 만족스러워서 근처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며 “다만 전용 면적 59㎡는 방이 조금 작게



‘드파인 연희’ 견본주택 59㎡A 유닛.

/성채리 인턴 기자

느껴졌다. 드레스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대신 안방 면적을 더 키웠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교통과 학군 입지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의중앙선은 배차간격이 길어서 이용이 제한적이고, 단지가 일차 형태라 가좌역과 멀리 떨어진 101동은 역까지 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의 자녀들이 배정될 연희초등학교는 경사가 높은 공동산을 넘어 25분 넘게 가야 한다는 점에서 도보 통학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드파인 연희는 사전예약 신청을 받지 않아 주말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7000명~8000명 정도 방문을 예상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로 묶여 있어 경쟁률 예측이 조심스럽지만, 약 4000건 이상은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해당지역, 21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계약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예정돼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분양 캘린더

동대문·김포 등 4개 단지 총 3260가구 청약 진행

1월 셋째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357가구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사우역지엔하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 시티(A1)’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단지는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에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드파인연희’를 분양한다. 지하4층~지상 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면적 59~115㎡, 33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도보권이며,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접근성도 우수하다.

문장건설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일원(사우4구역 공동1블록)에 ‘사우역지엔하임’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3층~지상 최고 20층, 9개동, 전용면적 84~151㎡ 38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골드라인 사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며, 이를 통해 김포공항, 마곡 등으로의 서울 이동이 수월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